

공개된 정보

2020년 5월 16일 저녁 8시, 유명 연극배우 윤미영의 저택. 어두컴컴한 조리실 안에서 두 사람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이미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어진 남자가 연신 술잔을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남자의 이름은 김진호. 윤미영의 남편이자 명목상의 저택 주인이다. 다시 술잔으로 뺨어가는 그의 손을 맞은편의 남자가 제지하며 입을 열었다.

“형님, 안주 나오면 드세요.”

김진호를 형님이라고 부른 남자의 이름은 박인권. 윤미영의 매니저이자 비서 같은 존재다. 인권의 말이 끝나자마자 한 칸에서 오른 속을 들여다 보던 남자가 덜컥 오븐을 열었다.

“올커니, 다 됐다.”

저택의 전속 요리사인 최종인은 갈색이 돌도록 잘 익은 통닭을 오븐에서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미리 해동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간이 걸렸네. 어서들 드세요. 전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종인은 말을 하며 인권을 흘깃 쳐다보았고, 인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는 이미 인사불성이었다. 종인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서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한 지 20분쯤 지나, 닭구이가 뼈만 남았을 즈음 종인이 밖에서 갑자기 인권을 불러냈다. 진호는 신경도 쓰지 않고 술에만 열중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간 지 잠시 후, 소란스러운 소리가 미영의 연습실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란 진호가 밖으로 뛰어 나가보니, 종인과 인권이 연습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고 경비실장인 주광일이 경비실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진호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사이에 광일이 연습실 열쇠를 가져왔고, 세 사람은 서둘러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켜진 연습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막다 남긴 듯한 저녁식사가 접시에 놓여있을 뿐.

용의자들의 알리바이 증언에 따른 타임라인

오후 6시	박인권, 연습실로 저녁식사 가져감
오후 6시 30분	주광일 순찰시간
오후 7시 3분	박인권, 김진호를 불러냄
오후 7시 8분	박인권과 김진호, 조리실에서 술을 마심
오후 7시 12분	최종인, 냉동닭을 가지러 냉동창고로 감
오후 7시 31분	최종인, 조리실로 복귀
오후 8시	주광일, 연습실 앞에 도착. 안에서 대분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 대기
오후 8시 10분	최종인, 조리실에서 나갈
오후 8시 30분	박인권, 조리실에서 나갈
오후 8시 37분	연습실 안의 목소리가 끊김. 연습실 문 앞에 있었던 박인권, 주광일의 일관된 증언
오후 8시 38분	최종인, 연습실 앞에 도착
오후 8시 40분	주광일, 경비실로 이동. 김진호, 연습실 앞에 도착
오후 8시 43분	주광일이 가져온 마스터키로 연습실 개방. 윤미영 실종



김진호(44) 남

→ 당신은 범인이 아니다.

* 비밀: 미영의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유도하려 했다는 사실

* 승리조건: 1. 범인을 찾아낸다. 2. 범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이지 않는다.

당신의 행적

당신은 윤미영의 남편이자 명목상의 저택 주인이다. 미영을 처음 만난 건 15년 전, 어떤 사건에 엮이면서다. 휴가차 놀러갔던 바닷가에서 힘겹게 생긴 남자가 미영의 손목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의 주장은 미영이 자신의 에메랄드 반지를 훔쳤다는 것이었다. 미영에게 혐의를 씌운 이유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데, 미영이 반지를 찾으려 허둥대는 자신을 결눈으로 힐끗 보았다는 게 이유의 다였다. 이때만 해도 정의감이 넘치던 당신은 실랑이에 끼어들어 미영을 감쌌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난리통이 벌어졌다. 끝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 절도(?)사건의 조사 때문에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동안 미영과 친해져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의 마음은 뜨거웠지만, 부부 관계가 소원해진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스킨십은 거의 없고 대화조차 잘 하지 않는다. 사실상 당신은 현재 윤미영의 재산 관리인이나 마찬가지다. 재산 관리 쪽 만큼은 능력이 뛰어난 편이었기에, 둘 간의 관계가 서먹한 지금도 재산 장부와 금융/금고 관련 각종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모두 당신이 관리하고 있다. 물론 재산 관리 능력이 뛰어난 만큼, 뒷돈을 빼돌리는 능력도 뛰어났다. 당신은 미영의 재산을 조금씩 빼돌려 자기 소유의 자산을 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일도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지금까지는 부부 관계가 서먹해져도 당신은 별로 불안하지 않았다. 미영은 의리에 약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성격이니까. 하지만 최근 오래 일해 온 집사가 저택을 떠나게 되면서 당신은 털썩 겁을 먹었다. 사람의 성격은 변하는 법이다. 사랑이 변한 것처럼, 미영은 사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당신은 다가오는 파경 위기를 느꼈다. 이혼을 당할지도 모른다. 사실상 이미 남편이니까. 문제는 재산이다. 이혼을 최대한 막아내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하더라도 확실하게 위자료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처음에는 후자 쪽이었다. 미영이 불륜이나 혹은 그와 비슷한 약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를 잡아내서 확실하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신은 먼저 주광일을 매수했다. 경비실장인 광일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돈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았다. 월급을 멀쩡하게 받고 있으면서도 3금융권 대출에 손을 대려하는 것도 그 증거다. 당신은 주광일에게 윤미영의 뒤를 캐도록 지시했고, 그의 조사 결과 보고에 따라 돈을 쥐어줬다. 편리한 남자였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당신도 말하지 않았다. 주광일은 성실했지만, 그가 가져오는 정보들은 그리 쓸모가 없었다. 상황이 궁해진 당신은 두 번째 방법을 생각했다. 이혼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법. 최소한 미영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이다.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었다. 미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된다. 당신은 프로비블리티 살인, 즉 확률 살인을 계획했다.

당신은 최종인이 몰래 식자재를 빼돌려 뒷돈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용해 최종인과 모종의 밀약을 맺었다. 식자재 빼돌리기를 저지시킬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그거야말로 잘된 일이었다. 당신은 최종인에게 접근해 그의 부정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식자재의 수급방식이나 식단을 당신 마음대로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매주 종류를 바꿔가며 특정 육류의 수와 품종을 제한했으며, 하루에는 한 가지 종류의 육류만 식단에 넣게 만들었다. 이런 기묘한 행위를 한 이유는 어떤 실험을 위해서였다.

아주 오래전에 미영이 혼합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다가 피부 발진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병원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즉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성 알레르기로 진단했다. 쇼크의 원인이 되는 육류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의사는 모든 육류에 대해 과민한 것은 아니니 한 가지 종류의 고기만 지나치게 과식하지 않으면 대체로 안전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그 후로 그녀가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다. 당신은 식단 실험을 통해서 그녀가 정확히 어떤 육류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알레르기의 원인을 알아내 그녀가 죽을 법한 식단을 짜는 것, 그것이 당신이 계획한 확률살인이다. 미영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방지를 위해 에피펜(에피네프린, 즉 아드레날린)이라 불리는 자가주사기를 가지고 다니지만, 당신은 이미 내용물을 바꿔치기해두었다. 바늘이 나오지 않는 불량품으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당신은 알레르기의 원인이 돼지고기, 그것도 뒷다리살에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당신은 종인에게 앞으로 식단에 들어가는 육류를 돼지고기 뒷다리로 제한하라고 요구했고, 식자재를 빼돌릴 때도 돼지고기 뒷다리는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 식단의 닭고기부터 돼지고기 뒷다리살, 즉 후지불고기로 대체했다. 마지막 남은 냉동닭은 대신에 당신이 오늘밤 술안주로 먹기로 했다. 돼지고기 뒷다리 외에는 다른 것을 그녀에게 먹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더불어 박인권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미영이 사적으로만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가져다 달라는 것. 업무용 폰은 U5, 사적 용도의 폰은 U7로 모델이 다르니 구분은 쉬운 것이다. 인권은 잠시 곤란해했지만, 거액의 돈을 제시하자 급세 넘어왔다. 스마트폰을 가져오라고 한 건 별 대단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말하자면 보험이다.

그리고 7시 조금 넘어서, 인권이 미영의 U7 스마트폰을 들고 방으로 찾아왔다. 잠시 후부터는 조리실에서 술잔이 벌어졌다. 당신은 박인권과 함께 조리실에서 술을 퍼대기 시작했다. 자축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요리사인 최종인이 지나치게 뺨을 들락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당신은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닭만 잘 구워 내놓으면 그만이다. 어느 순간 밖으로 나간 종인은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고, 인권도 밖으로 나가더니 소식이 없다. 그리고 보니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눈치가 계속 보였던 것 같다. 술술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밖에 나가 확인해 보니 종인과 인권이 연습실 문 앞에서 서 멍하니 서 있었고 경비실장인 주광일이 경비실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연습실 안에서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

* 추가 규칙: 당신은 최종인과 한 거래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실사 타인에 의해 밝혀지거나 최종인에 의해 폭로된 후라 해도 끝까지 부정해야 한다.